

설악산 국립공원의 자원 분포현황과 보전대책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a countermeasure to preservation of Sorak National Park

유태현^{1*} · 진순자¹ · 윤석윤¹ · 조태동¹

¹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I. 연구의 목적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악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의 탐방자는 연간 약 4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봄·가을의 집중현상과 무질서한 공원이용, 제도적으로 허가한 식물채취, 생활오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한 관광수익을 요구하는 등 그에 따른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행 공원정책 중 보전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용도지구상 자연보존지구의 지정면적 대하여 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를 overlay 하여 면적의 분포를 비교 하였다. 그 위에 문화자원과의 관계도 파악하여 향후 공원정책의 보전계획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조사는 환경부에서 발급한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과 생태자연도 1등급을 설악산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와 overlay 시켰다. 여기에서 과거에 작성된 녹지자연도를 자연보존지구의 면적과 비교한 것은, 과거의 공원정책을 파악하고자 함이고 최근 녹지자연도를 발전시켜 작성한 생태자연도와 자연보존지구와의 면적을 비교한 것은 현행의 공원정책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진행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Adobe Illustrator 10 프로그램과 Adobe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도를 결합하였고,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그리고 자연보존지구를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면적을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녹지자연도와 자연보존지구와의 관계

설악산국립공원의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은 전체면적 373km²에 대하여 89.5%(333.7 km²)로서 여타 국립공원보다 임상이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연보존 지구는 전체면적의 38.6%(143.8km²)로서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의 면적에 비하여 43.1%(143.8km²)만이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은 “녹지보전을 위한 잠정기준(1994.6.20,환경처)”을 근거로 보호대상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 자연보존지구는 향후 56.9%(189.9km²)가 확대 지정되어야 함을 제언할 수 있다.

2. 생태자연도와 자연보존지구와의 관계

설악산국립공원의 전체면적 373km²에서생태자연도 1등급은 91.2%(341.3km²)로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보다 76km²가 넓게 분포 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자연도 1등급은 전체 면적의 91.2%로서 현행 자연보존지구보다 57.9%(197.4km²)가 생태적으로 가장 안정 되어있거나 산림이 양호한 면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향후 자연보존지구의 확대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설악산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중에 식물상과 생태계가 매우 양호한 면적이 약 90% 점유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보존지구의 지정현황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42.1%만이 지정되었고 나머지 57.9%(197.4km²)의 면적이 엄정 보전적 측면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연보존지구와 문화자원 분포 현황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는 보물 5점, 천연기념물 14종, 지방문화재 4점, 지방기념물 3점이 있다. 하지만 이중에는 자연보존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석황사, 위령선바위, 백담사 등이 자연환경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이 진행될 경우 훼손으로 부터 직접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 보호 역시 보전적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설악산 국립공원은 식물상을 포함하여 약 90%가 생태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용도지구상 자연보존지구는 38.6%(143.8km²)로서 녹지자연도 8등급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의 분포를 근거로 본다면, 약 50%가 자연보존지구 외에 점유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상 제도적으로 엄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보전대책을 대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과 생태자연도 1등급이상에 대하여 공원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세히 분석한다. 분석 후 보호계획의 단계를 정하여 엄정 보호되어야 할 자원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용자의 이용행태로부터 절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연보존지구도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한 용도지구의 재조정과 자연공원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V. 인용 및 참고문헌

1. 조태동·이명우·김진선(1997)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제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5호(통권91호), pp.186~201
2.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1997)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전계획, pp.2~68
3. 국립공원관리공단(2001)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현지조사자료, pp.225~230
4. 국립공원관리공단(2003) 설악산국립공원 자원 모니터링, 403.pp